

**대만, 제5세대 전투기 구상
라팔, EF2000, F-22 이 물망**

대만 공군은 프랑스 다소(Dassault)사의 미라주(Mirage)-2000 및 록히드 마틴사의 F-16A/B 전투기 조달에 이어 제5세대 대만 공군주력전투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대만이 고려하고 있는 기종은 다소사의 라팔(Rafale), 유러파이터(Eurofighter)의 EF2000 그리고 보잉/록히드사의 F-22. 대만 공군관계자는 "현재 대만은 미국과 유럽 전투기의 사전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유럽 및 미국의 항공기개발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대만의 기술수준 및 생산능력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의 생산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제5세대 전투기 사업은 완제기를 수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전투기 구매계획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2년 대만이 150대의 F-16, 60대의 미라주2000-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측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대만에 新 무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중국에 약속한바 있다.

한편, 대만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가 현재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개발중인 청도 F10전투기와 같은 중국공군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기종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獨 DASA, F-4 업그레이드
그리스, 주 사업자로 선정**

독일의 다임러벤츠사가 그리스 공군 F-5 팬텀기의 업그레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39대가 업그레이드될 동 사업에는 미국의 보잉(前 록웰사)과 경합을 벌였으나 공군평가단이 재정, 기술 그리고 옵션물량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DASA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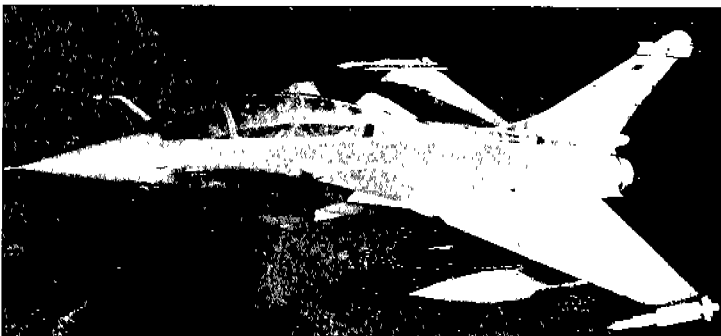
동 사업은 오는 2000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F-4전투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디스플레이, 레이더 등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며 DASA는 사업 총책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링스에 관심
해군용 헬기 구매에**

웨스트랜드 수퍼 링스(Lynx) 헬기가 말레이시아의 해군헬기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군은 업체간 경쟁유도 대신, 영국 웨스트랜드(Westland)사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이미 모든 평가를 완료했으며 웨스트랜드사와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경쟁중인 다른 업체는 사업의향서의 철회와 새로운 조건제시 등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기종은 수퍼링스 헬기 이외에 유로콥타(Eurocopter)사의 AS565, 카만(Kaman)사의 SH-2G, 시콜스키(Sikorsky)사의 S-70B기종이다.

말레이시아의 조달정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나, 그렇지



다소사의 라팔이 대만 공군의 차세대 주력전투기 기종으로 물망에 올랐다.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 실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Denel CSH2 공격형 헬기구매의 경우 의향요구서 없이 바로 협상을 벌인바 있다.

**필리핀, 전투기 조달계획 난항
대상기종조차 선택못해**

필리핀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대상기종선정이 평가단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필리핀 공군의 당초 계획은 올해 5월 대상기종을 외국 전투기 생산업체로부터 접수받아 6월 말까지 6개 기종 중 3-4개 기종을 선택, 올10월 경 전투기를 최종 선택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종선택의 지연으로 최종선택은 필리핀 총선이 있을 내년 6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조달정책상 대통령 임기 말 6개월 전에는 어떤 조달계약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다소(미라주200-5), 이스라엘항공기산업(IAI)(Kfir 2000), 록히드마틴(F-16C/D), 보잉(F-18C/D), MAPO-MIG(MiG-29) 그리고 사브(JAS39 Gripen)등 6개 업체이다. 필리핀 평가단은 첨단 무기시스템의 장착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공대공 레이더

유도미사일의 조달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Derby BVR 미사일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휴즈(Hughes)사의 AIM-120 고등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니, 군 전투기로 Su-30고려
F-16 협상결렬시 차선택**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 추가구매협상이 결렬될 경우 러시아 수호이(Sukhoi)사의 Su-30 기종 12대의 구매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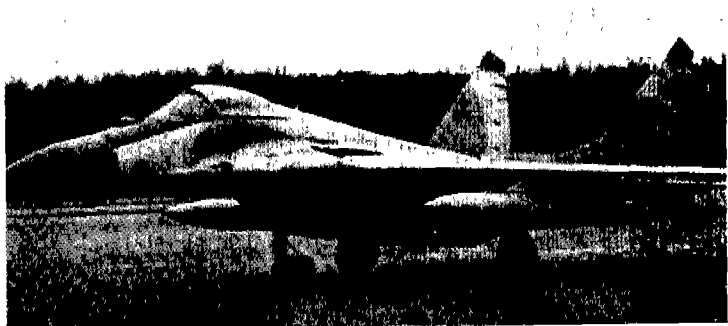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함께 러시아 밀(Mil)설계국의 Mi-171M 헬기 8대의 구매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인도계획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Su-30K전투기는 Su-30의 수

출버전으로 러시아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기종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함께 MAPO MIG 사의 MiG-29와 프랑스 다소(Dissolute)사의 미라주(Mirage) 2000 도 구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Su-30의 표준 무기장착으로는 적외선타미기가 내장된 Vympel 사의 R-27 중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Vympel 사의 R-77 공대공 레이더유도 미사일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미사일이 100%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Su-30의 N-001레이더의 개량이 필요하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 말레이시아도 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 이미 8대의 Su-30을 납품 받았으며 지형여건에 맞게 개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러시아 기종을 등장시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하고 있다.